



기획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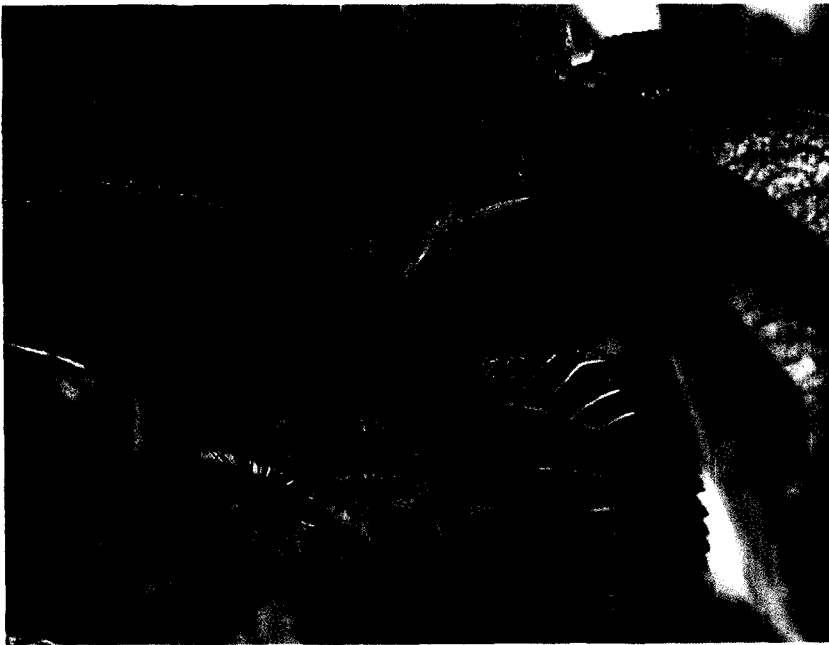


임경빈  
아카시아 연구회장

# 조경수목산책 (XVIII)

## — 딱 나무 —

◀ 경북 황장산 1995. 6. 11



풍긴다. 『죽을 때 제 이름을 소리치면서 죽는 나무가 무어제?』 하는 수수께끼는 어릴 때 수 없이 들어온 것이지만 그 때마다 항상 새롭게 여겨졌다. 『딱』 소리치면서 지나 줄기가 끊어져 나가는 『딱나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그 밭 언저리의 딱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딱나무는 뽕나무과

나의 고향마을에는 딱나무가 있었다. 경사진 밭의 둔덕에 한 줄로 서 있었는데 물론 심어준 것으로, 목적은 흙의 침식 유출방지 와 방풍의 효과도 노린 것으로 짐작한다. 딱나무가 없었더라면 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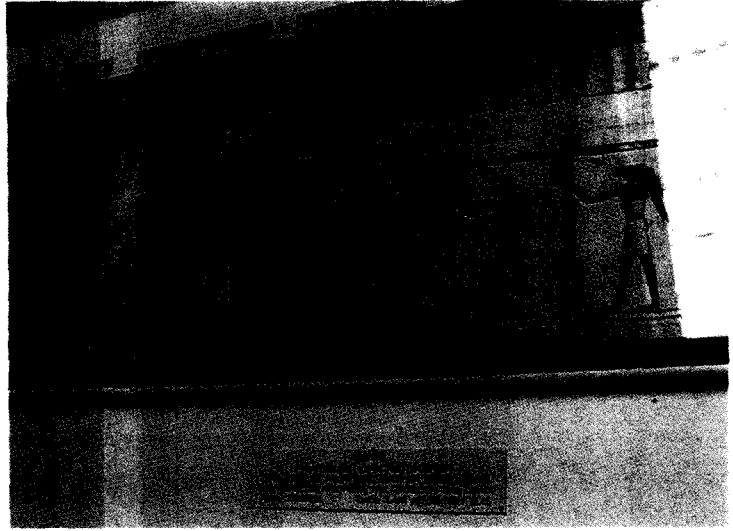
의 경계는 무너졌을 것이다. 딱나무의 고마움을 안다.

그 때 우리는 『딱나무』로 말했지, 힘없는 액센트인 『딱나무』로는 말하지 않았다. 딱나무라 말하면 좀 더 짜릿하고 자극적인 맛을

(科)의 작업실에서 만들어진 나무로서 뽕나무류, 무화과나무류, 구지뽕나무류와는 모두 서로 동기 간이다. 그래서 그들끼리는 서로 닮아 있고 한 솥에서 밥을 먹고 자라났으니 친숙한 사이에 있다.

그래서 과(科, family : 생물학상의 분류 단위의 하나)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닥나무속에는 종(種, 분류학상의 기본 단위)으로서 닥나무와 꾸지나무가 알려지고 있다. 꾸지나무는 닥나무와 달라 잎이 뚜렷한 심장저(心臟底)를 가지고 있고 잎의 앞 뒤에 더 강하게 보이는 조모(粗毛)가 나 있다. 남쪽지방에 있어서는 이 나무도 닥나무라고 부르는 일이 흔하다.



▲파피루스에 그린 그림. 기원전 1세기말 티베스. 이집트 대영박물관 1991 여름.

## 1. 닥나무의 명칭

닥나무는 한자로는 저(楮, 닥나무 저)로 나타내고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자라고 있다. 대만, 중국, 만주에도 분포해 있다. 한자명은 닥나무나 꾸지나무나 혼동이 되면서 쓰여진 느낌이 있다. 무라타(村田, 1934)는 그의 책에 있어서 꾸지나무의 제목 아래 저목(楮木), 구목(構木), 곡목(穀木)이란 한자명을 보이고 있다. 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곡(穀, 곡식 곡)자와 곡(穀, 닥나무 곡)자의 구별이다. 곡식 곡자는 一자와 禾자가 들어가 있고, 닥나무 곡자는 一자와 木자가 들어가 있다. 앞 자는 초본을 뜻하고 뒤의 글자는 목본을 뜻한다. 특히 一자는 생략하고 화(禾)자만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즉 穀으로 쓰이는 일이 흔하다.

물명고(物名考)는 1830년경 실학자인 유희(柳僖)의 저서인데 박

물지 비슷하나 명칭을 우리말(언문)로 주해하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규합총서(閩閩叢書)를 지은 병허각 이씨(李氏)의 고모이다. 실학이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물명고에는 닥나무 저(楮)는 곡(穀, 米에 주의할 것)과 같다. 다만 껍질이 얼룩진 것은 저(楮)이고 흰 것은 곡(穀)이라 했다. 닥나무를 곡상(穀桑)으로도 말하고 닥나무 열매를 저도(楮桃)라 한다고 했다.

## 2 시경의 닥나무

穀자는 이미 중국의 옛적 시경 시경에 나타나 있어 학문하는 유생들은 잘 알고 있었다. 소아(小雅) 학명(鶴鳴)에 다음이 있다.

학은 질편한 벌판에서 울고 그 소리 슬퍼 하늘에 이어진다.

물가의 고기는 깊은 곳에 숨고 즐거운 동산에 심어진 박달나무(檀)

그 아래에는 닥나무(穀)가 자란다.

쓸모없는 돌로 옥돌을 간다.

여기에 닥나무가 등장하고 있다. 학의 울음은 비참의 상징이고 물고기가 숨는다는 것은 어려움으로부터의 도피를 상징한다.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감을 비유하고 있다. 동산에 심어진 박달나무는 자기의 영역을 지켜주는 보호자이며 닥나무는 그곳 숲의 즐거운 생태계를 상징한다. 쓸모없는 돌은 다른 돌을 위해서 희생이 된다는 것으로 재능이 낮은 자는 세상에서 잘 해보고자 해도 별 수 없다는 것을 풍자한 것이다.

이때의 穀이 닥나무인지 꾸지나무인지 그것을 분별하기는 쉽

지 않으나 두 가지를 하나로 뭉쳐 문화적인 고려를 하여도 불편은 없을 것으로 짐작한다.

### 3. 제민요술의 닥나무

제민요술(齊民要術)은 중국 최고의 농업서라고 볼 수 있다. 6세기 전반에 가사협(賈思勰)이 지은 것으로 10권으로 되어 있다. 가사협은 지금의 산둥성 익도현(益都縣) 부근의 사람으로서 양 2백 마리를 기른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작물과 가축의 재배 사육기술 등을 이 책에 설명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나라 농업서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다.

제민(齊民)이란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일반 백성, 즉 평민(平民)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책의 서문이 명문이기에 그 일부를 뽑아 음미해 보기로 한다.

「신농은 보습과 가래를 만들어 천하 백성을 이롭게 했고 요임금은 네 아들에 명하여 농력(農曆)을 만들게 했으며 순임금은 식량 정책을 여덟가지 정책 중 가장 우두머리에 놓았고 우임금은 농토의 제도를 완비해서 전 국민의 경종(耕種)을 장려했다. 은나라 주나라가 번성할 시대에는 시경과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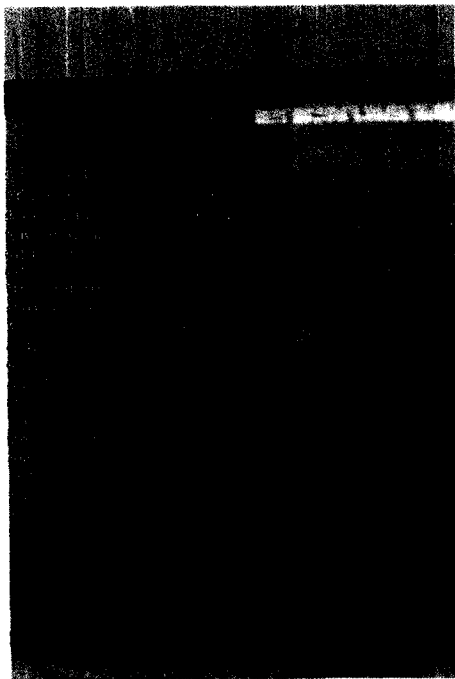
경에도 진술이 되어 있지만 그 요점은 백성을 편하게 함에 있었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교화하는데 있었다. 팔다리를 써서 근면하지 않고 오곡의 종류 구별도 못하는 자가 어찌 지도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 성인(聖人)은 자기의 옷차림 초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도(道)를 행하지 아니함을 수치(守恥)로 여긴다. 자기의 수명의 길고 짧음을 걱정하지 않고 백성의 궁핍을 걱정한다. 우임금은 물길을 다스리는데 자기 몸을 양간(陽旰)의 물에 바쳤고 탕(湯)은 나라의 한발이 심하자 자기 몸을 상림(桑林)의 제사에 바쳐 빌었다. 신농씨는 초철했었고 요임금은 야위었고 순임금은 햇볕에 타

서 검게 되었으며 우임금은 손에 발에 굳은 살이 박혔다. 이것으로 성인은 백성을 보살핌이 극진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임금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팔다리로 근면하지 않고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서는 일이 성취될 수 없고 육구의 충족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제민요술의 서문의 일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암시해 주는 바가 있다. 이 책에 기록된 닥나무의 재배요령을 다음에 옮긴다.

닥나무는 곡저(穀楮)로 말하는데 곡과 저는 한 가지이고 다른 것이 아니며 나무껍질로 종이를 만든다. 닥나무는 습기가 있는 곳에 심고 땅이 비옥할수록 좋다. 가을에 열매를 따서 깨끗한 물로 씻은 뒤 햇볕에 말리고 발갈이를 잘 해서 삼씨와 함께 초봄에 뿌린다. 그 해 가을 겨울에도 삼을 끊지 않고 그대로 둔다. 삼이 있어야 닥나무의 추위의 해를 막아줄 수 있다. 삼씨와 함께 뿌리지 않으면 닥나무는 대개 동해를 받아 죽게 된다. 그 다음해 초봄에 베어주고 불을 질러서 태워준다. 한 해동안에 사람 키 한 길 정도는 자란다. 태우지 않으면 줄기가 가늘게 되고 자람도 늦어진다. 3년이 지나면 끊어서 이용할 수 있다. 3년 이전이면 껍질이 얇아서 쓸모가 없다. 닥나무의 벌채시기는 12월이 가장 좋고 4월이 다음이다. 시기를 잘못해서 끊으면 닥

▼ 파피루스에 그린 그림. 대영박물관. 1991 여름.



나무가 고사하는 일이 흔하다. 해마다 정월에는 불을 놓아 태운다. 나뭇잎이 떨어져 있으므로 불을 놓으면 그것이 타게 되고 닥나무의 자람을 돕게 된다. 껍질을 찢 뒤에 벗겨서 팔면 그대로 파는 것보다 이익을 더 높일 수 있다. 껍질을 벗기고 난 뒤의 휘추리는 땀감으로 이용된다. 닥나무발 30묘(면적 단위)를 만들어 놓으면 한 해에 10묘씩 끊어 이용하고 3년마다 한번씩 베어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처럼 흥미있는 내용이 있고 그때부터 중국의 닥나무 재배는 과학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닥나무는 이처럼 종이 제조 원료로서 인식되어 왔다.

#### 4. 종이의 역사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무엇에 사실을 기록했을까. 세계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중국에는 각각 문자가 발명되었는데 그 중 가장 오랜 기록은 메소포타미아이고 그곳의 민족은 기원전 4천년부터 3천년에 이르는 사이 말하자면 6천년 전부터 점토판(粘土板, clay table)에 설형문자를 새겨 기록을 남기고 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강물이 흐르는 이곳에는 점토(찰흙)가 많았고 물에 구운 점토판은 보존성이 뛰어났다.

그 뒤의 것으로 이집트의 파피루스(papyrus)가 있는데 이 풀은

높이 2m를 넘고 우리나라 왕골풀을 연상시키는 형태를 가졌고 일명 종이 사초(莎草)라고도 말한다. 줄기는 3각형으로 모가 나 있는데 외피를 벗기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섬유질의 심을 얻어 칼날로 얇게 깎아 낸다. 이것을 평판 위에 배열하고 다시 얇은 조각을 그 위에 직각방향으로 포개고 나일강의 물을 뿌린 뒤 몇 시간 동안 압착하면 얇은 막으로 된다. 서로 달라붙는 점질성이 있어서 접착이 잘 되고 그 뒤 그 표면을 상아 같은 것으로 마찰해서 매끄럽게 한다.

파피루스는 기원전 3천년경부터 기원 후 10세기경까지 오랫동안 필기재료로서 이용되었다. 파

피루스의 결점은 접었을 때 접은 부분이 잘 훼손되는데 있다. 파피루스가 종이 페이퍼(paper)의 어원이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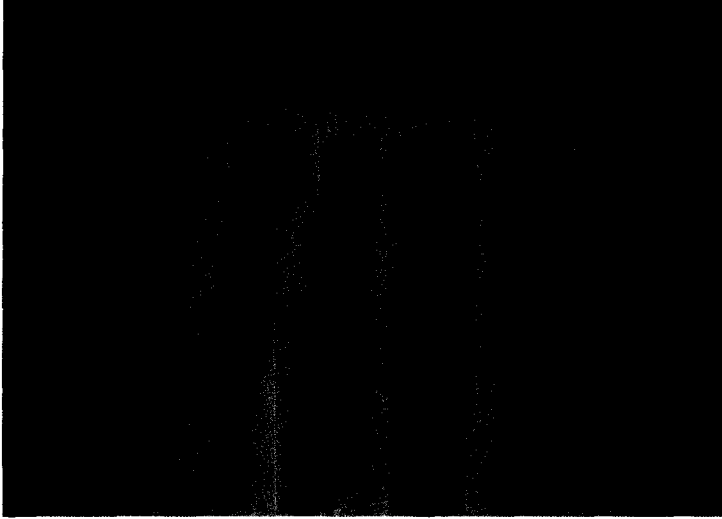
이곳에 내가 1991년 여름 런던의 대영박물관을 관람할 때 촬영한 이집트 파피루스에 그린 그림을 보인다. 처음 사진은 기원전 1세기 말경에 이집트의 고대 수도 티이베스(Thebes)에서 출토된 것으로 산자와 죽은 자에서 뜻을 가져온 그림인 모양이다. 이처럼 파피루스의 그림은 선명하게 오래도록 유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 백(帛) 즉 명주천에 글자를 썼다. 이처럼 견포(絹布)는 기록재료로서 훌륭하였으나 값이 비쌌다. 보존성은 종이만 못하고 비단에 그린 그림은 오래가면 잘 훼손된다.

중국에서는 목간(木簡), 죽간(竹簡)이라 해서 나무나 대나무의 줄기를 얇게 다듬어 기록재료로 했다. 청죽(靑竹)을 가열해서 기름을 없애고 사용했는데 길이 22cm, 폭 1.2cm, 두께 1mm의 것이 많다. 중국 남부에는 대나무가 많아서 그곳에는 죽간을 이용했다. 동양권에서 글씨를 횡서로 하지 않는 것은 목간이나 죽간

▼인간의 삶. 파피루스. 대영박물관. 1991 여름.





▲목간의 일증. 신안해저 유물발굴때 중앙박물관에서. 1993. 10.

에서 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자가 생존했던 춘추시대(기원전 500년 경)는 목간과 죽간이 사용되고 있어서 기록 문서의 보존, 운반, 그리고 독서에는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양피지(羊皮紙)를 퍼치먼트(parchment)로 말하는데 이것은 양피를 석회액에 담구어 털을 뽑고 건조시킨 뒤 칼로 깎아내어 얇게 한 생피(生皮)이다. 견고하고 앞뒤로 기록을 할 수 있어서 귀중한 것이었다.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것을 벨럼(vellum)이라 하고 이것도 고급의 기록재료로 쓰여졌다고 한다.

통초지(通草紙)는 영어로 라이스 페이퍼(rice paper)로 말하고 대만의 특산품이었다. 통탈목(通脫木)의 줄기의 심을 얇게 깎아내어 얇은 막으로 만든 것이다. 제주도 서귀포 천제연폭포 쪽에

는 길가에 통탈목이 많이 자라고 있다. 통초지는 파피루스처럼 식물조직 그 자체이고 강도가 약하고 또 많이 생산될 수도 없다.

## 5. 중국의 종이

종이는 중국에서 발명되었다. 후한서(後漢書)에 기원 105년때 궁중(宮中), 용도계장의 직책에 있던 채륜(蔡倫)이 삼(麻)과 나무 껍질을 재료로 해서 종이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105년에 앞서는 기원전 170년경 전한(前漢) 이래의 종이가 발견되고 있어서 채륜은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개량 개발한 사람으로 그 공로가 크다.

그 뒤 중국의 제지술은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고 고구려의 승려 담징은 610년 일본으로 건너가 제지술을 알려주었다는 기록이 일

본서기(日本書紀)에 있다. 중국의 제지술이 어느때 어떠한 경로를 지나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기록에 없어서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 전파된 중국의 제지술은 그들보다 더 발달되어 좋은 종이를 만들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종이를 숭상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으로 갈 때에는 종이를 뇌물용으로 많이 지참했다고 한다.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고려지 한 장만 뇌물로 주면 모든 일이 풀려 나갔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를 훑어볼 때 조선 후기에 있어서 청나라에 대한 종이의 조공이 있다. 처음 예물로서의 공물지는 연간 2만여 권이었으나 병자호란 이후에는 10만 권에 이르렀고 이로 말미암아 당시 우리나라 종이생산 사업이 얼마나 곤경에 빠졌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눈물겨운 일이었다.

명(明)나라 때 16세기 후반 쯤에 나온 문헌에는 고려지는 견면(藳綿)으로 만든 것이고 빛이 희고 무늬가 있으며 질기고 부드럽기가 비단같다고 했다. 이러한 종이는 중국에는 없다고 했다. 견면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다른 재료도 들어가서 고려지는 만들어졌고 매우 질겨서 가죽 비슷하다 해서 중국에서는 등피지(等皮紙)라고도 불렀다. 그러나 견지(藳紙)라는 것은 누에의 고치실을 넣어 만든 것이 아니고 질이 섬세하고 질기고 명주처럼 광택이 있다는

좋은 종이에 대한 명칭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 6. 신라 때의 종이

닥나무 종이가 사용된 사실의 하나에 신라 민정문서(民政文書)가 있다. 이것은 일본 동대사(東大寺)의 보물창고 정창원(正倉院)에서 1938년 10월에 발견된 문서인데 1953년에 노무라(野村)란 사람이 사학잡지(史學雜誌) 제62

집 4월호에 제목 「정창원에서 발견된 신라의 민정문서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발표됨으로서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이 문서는 닥나무 종이로 되어 있고 세로 약 30cm, 가로 약 60cm에 이른다.

이 문서가 작성된 연도는 서기 755년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라고 추정되고 있어 8세기의 중반쯤이다. 이 문서가 근 천삼백년간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닥나무 섬유로 된

종이라는 데 있다. 닥나무의 세포막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만일 이 문서가 당시 흔했던 비단, 즉 명주천에 기록되었다면 오늘에까지 전해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닥나무의 힘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종이는 물론 신라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중국 채륜 때보다 7백여년 뒤지고는 있으나 제지술은 중국을 능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지의 오래된 유품으로서는 신라 경덕왕 10년(751) 석가탑이 창건되었을 때 그 안에 보존되었던 다라니경의 권축(卷軸)이다. 넓이 6.5cm, 길이 약 7m의 두루마리 종이인데 재료는 우리나라의 닥나무로 알려져 있다. 권축을 보호한 비단 천은 썩은 상태였으나 종이는 거의 그대로였다. 이러한 용도로 종이를 만들 때에는 적은 양이긴 하나 비상석(砒霜石)을 섞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이것도 8세기 중엽경의 사실이다.

1995년 8월 22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신라 불경 추정 종이뭉치 발견」이란 보도가 있다. 내용을 보면 통일신라 시대의 불경으로 보이는 국보급 종이뭉치가 전남 구례군 화엄사의 5층 석탑에서 발견되었고 이 석탑의 건축연대가 9세기 중반으로 추정되어 이 종이뭉치의 제작연도는 9세기 전반 이전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분량이 상당량이라고 했다. 이것도 닥나무 종이가 아니



▲삼지닥나무. 전남 승주 선담사. 1986. 9

고서는 천여년이란 긴 세월을 지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닥나무 껍질로 만든 한지는 세계에 으뜸가는 종이로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오면서 문화창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여를 해왔다.

## 7. 조선조 때의 종이

닥나무는 종이 제조원료로서 귀중한 것이었고 지필묵연(紙筆墨硯)은 문방사우로서 학문발달의 바탕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을 곁에 두지 않으면 교양인 노릇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경국대전 재식(栽植) 조에도 『각 고을의 옷나무, 뽕나무, 과목의 수 그리고 닥나무 밭, 대나무 밭, 왕골 밭은 대장을 만들어 비치하여 두고 재식하며 배양하다』라고 했다. 닥나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17세기 중반 쯤에 영의정 김육(金堉) 등이 만든 저죽전사실(楮竹田事實)이란 책에는 닥나무, 대나무, 옷나무, 뽕나무 등의 재배 현황과 생산수량을 기록한 것인데 가령 닥나무가 어느 지방에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호남 지방에 닥나무가 많았고 충청 지방에는 일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곡성, 임실, 구례, 무주, 전주, 순천, 부안, 고창, 광양, 남원, 하동, 의령, 진주, 거창, 영천, 함천, 문경, 영덕, 부여, 보은 등지에는 닥나무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책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지방의 통계가 없어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은 말할 수 없다.

태종(太宗) 때에는 각 도에 대호(大戶)는 200그루, 중호는 100그루, 소호는 50그루의 닥나무를 심도록 하게 하였다.

## 8. 종이의 종류

창호지로 통칭하기도 한 우리나라 한지의 종류 명칭은 다양해서 이곳에 다 들 수 없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는 나라에서 사용한 종이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 자문표지(咨文表紙) : 중국과 왕래하는 문서에 사용한 종이

② 저상지(楮常紙) : 일상 사용하는 닥종이

③ 차초주지(次草注紙) : 품질이 좀 떨어지는 초기(草記) 용의 종이

④ 공사지(公事紙) : 관청에서 보통 사용하는 종이

⑤ 관교지(官教紙) : 사령장에 쓰이는 두꺼운 종이

⑥ 대호지(大好紙), 소호지(小好紙) : 과거에 응시할 때 쓰이는 종이. 소호지는 작고 질이 좀 떨어진다.

⑦ 백면지(白綿紙) : 중국에 보내는 예물용

의 종이로서 목화를 섞었다.

⑧ 저주지(楮注紙) : 두루마리. 周紙, 卷紙

⑨ 약선지(藥線紙) : 화승(火繩)에 쓰이는 종이

⑩ 장지(壯紙) : 두껍고 단단한 품질이 썩 좋은 종이

신라시대에는 종이 생산을 맡아보는 지조부서(紙造部署)가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관영 제지공장인 지소(紙所)가 설치된 바 있고 조서시대에는 조지소(造紙所), 조지서(造紙署)를 두었다. 지장(紙匠)은 상당한 대우를 받았다. 민영의 종이생산도 있었으며 특히 승업(僧業)으로서 종이 생산이 있었다. 그러나 나라에서 승려를 몹시 괴롭혀서 절간이 폐허가

▼삼지닥나무의 꽃. 전남 광양. 1987. 4





▲삼지닥나무의 꽃봉우리. 전남 선암사. 1988 초봄.

되다시피하기도 했다 한다.

이러한 종이제조는 찬란한 우리 문화의 한 면을 바라보게 했고 그래서 종이 명칭도 다양했다.

## 9. 닥나무라는 이름의 나무

### (1) 삼지닥나무

이 나무는 팔꽃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성의 관목이고 가지가 굵고 강인해서 꺾기 어렵다. 어린 가지는 흰 털을 가지고 잎은 좁고 길며 거치가 없으며 뒷면이 희게 보인다. 꽃은 봄에 피는데 모여서 구상(球狀)으로 보인다. 흰 털을 가진다. 줄기는 3갈래로 갈라지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삼지닥나무라는 이름을 얻고 있다. 중국산이고 꽃을 보기 위해서 뜰에 심는다. 노란 꽃이 가상할 만하다. 껍질은 제지용으로 쓰인다. 남쪽 따뜻한 곳에 식재된다. 음성식물로서 직사광선을 싫어하므로 다른

나무아래 심어서 혼식하는 것이 좋다.

제지원료로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이름은 삼지(三枝)닥나무로 되었다.

### (2) 산닥나무

산닥나무는 얼핏보면 싸리나무처럼 보인다. 이것도 팔꽃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인데 키는 1m 쯤에 이른다. 어린 가지는 가늘고 부드럽고 마주나며(對生), 거치는 없다. 잎의 뒷면은 희게 보이고 꽃이 여름에 핀다. 우리나라 남쪽에 자라고 일본에도 있다. 일본명은 kiganpi인데 한자로는 黃雁皮로 쓴다. 꽃받침의 색깔이 노랑이라서 ki(黃)라는 형용어가 들어간 것으로 안다. 이것을 木雁皮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산닥나무는 고급 섬유재료가 되고 일본에서는 이 종이를 안피지(雁皮紙)라고 부른다. 생각건

대 산닥나무는 오래 전에 일본에서 도입되어 심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강화도 전등사 부근의 산자락에서 몇 그루를 보았는데 그것이 지금도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에 있는 산닥나무 자생지는 절간 옆 숲 안 다소 개방된 곳에 분포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왜저(倭楮)라 하는 것은 산닥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산지로서 울산, 경주, 창원, 고성, 거제 등이고 황해도 풍천(豐川)에도 난다고 했다. 조선 조때 외국의 발달된 닥나무 종류와 제지 기술을 도입하고자 노력했다. 세종(世宗) 12년(1430)에는 사람을 대마도에 보내서 왜저를 도입하게 하였다. 기록에 보면 왜저로 종이를 만들면 윤택이 나고 질기고 또 가스래기가 돌아나지 않아 좋은 종이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도입한 것은 진도, 완도, 남해도, 거제도, 창녕 등지에 나라에서 심게 했다고 한다.

산닥나무는 가을에 종자를 따서 뿌리면 묘목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이 나무가 서 있는 산에는 자연생의 어린 묘도 관찰된다. 이 나무도 제지원료로서 귀중한 것이어서 산닥나무라는 명칭을 얻어 닥나무에 추파를 던지고 있다. 정태현 박사는 꽃 이삭이 더 긴 것을 강화 산닥나무로 이름붙여 구별하고 있으며 강화도에 야생한다고 했다.



### (3) 두메닥나무

이 나무도 팔꽃나무과(瑞香科)에 속하는 낙엽성의 관목이다. 잎에 거치가 없고 꽃이 가지 끝에 모여서 노랑색으로 핀다. 등근 열매가 가을에 붉게 익는다. 높은 산에 나고 사할린, 캄차카, 우스리, 아르르 등 추운지방에 분포한다. 관상적 가치가 있고 껍질은 제지용으로 쓰일 수 있으나 자원이 빈약하다.

팔꽃나무과의 나무들은 이처럼 섬유의 이용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두메닥나무의 꽃 사진을 보인다. 이 꽃은 강원도 함백산에서 채집된 것으로 헬리콥터로 운반되어 여의도까지 와서 우리 집으로 다시 운반된 것으로 나의 서재에서 개화한 것이다. 특별 수송을 거친 것으로 나에게서 어떤 소중한 뜻이 있는 꽃 사진이다.

## 10. 나와 닳종이 문화

내가 자랄 때 한지란 말은 쓰지 않았고 창호지로 통했다. 문틀에 붙이지 않는 것이라도 일단 창호지란 이름으로 통용되었다.

정월 대보름 때 서낭당에 바친 제수로서의 백지를 가져다 태우고 그 재를 물에 타서 마시면 두뇌가 명석하게 되고 공부 잘 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들했으나 그 종이는 나이든 형님 또래의 차지가 되었고 나는 그 재를 먹어보지 못했다. 나는 창호지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온 것을 안다. 나의

어린 시절의 창호지 문화를 다음과 같이 찾아가 본다.

내가 아마 종이와 인연을 갖게 된 것은 예닐곱살 때 한문서당에 다니면서 붓글씨 공부를 할 때라고 기억된다. 선생님이 한 줄 초를 잡아 써 주시면 그것을 훑내내면서 몇 줄 쓰는 것인데, 당시 종이는 신문지였다. 어릴 때는 후각이 더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문지에는 독특한 현대문명의 향기가 폭 배어 있었고, 그 냄새는 시골 아이들의 후각에 쟁하는 자극을 주는 데 넉넉했다. 이러한 신문지 위에 묵향(墨香)이 곳곳에 떨어질 때에는 서로들의 눈동자가 눈동자 속에서 영롱했다.

바로 내려가야 할 글자의 획이 가다가 꼬부라지는 닳은 신문지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붓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다만 그때까지도 굳어있는 손목 탓이었다.

형님 또래들이 정월초 쫄이 되면 창호지와 대닥대기로 연을 만들었는데 어머니에게서 얻은 밥과 단단한 무명실 그리고 성냥 한 갑이면 연을 만드는 재료는 완비된다. 한지를 알맞은 크기의 네모 꼴로 끊고 대나무를 갈라서 가는 줄기로 만들고 이 줄기를 연의 크기에 맞게 끊는다. 대줄기에 밥풀칠을 충분히 하고 한지에 붙여 늘린다. 한지는 성질이 그러해서 대나무 줄기에 딱 달라붙는다. 쌀미(米)자 형으로 대나무 줄기를 배열해서 붙이고 알맞은 곳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이 때 타고

남은 성냥대의 불똥을 살짝 대면 알맞은 구멍이 만들어진다. 이 구멍에 실을 꿰어매면 연이 완성된다. 연을 들고 그때는 한량없이 넓게 보이던 밭에 가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산마루를 넘다시피하는 연은 우리들의 꿈을 싣고 하늘로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의 높은 뜻이 연실을 통해서 손목에 와서 닿을 때 우리의 의지는 푸른 하늘 속으로 녹아 들어갔다. 연은 동심의 꽃으로 피어오르는 꿈의 장치였던 것이다. 추운 날 코를 흘려가면서 거의 종일토록 연에 매달려 점심을 독촉하는 어머니의 말도 희미하게 들리곤 했다. 한지는 꿈의 비행장치였다.

해가 지나자 제삿날 지방(紙榜) 쓰는 것이 나의 의무같이 된 것은 조상 숭배의 정신을 철저히 주입시켜 보겠다는 아버지의 뜻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제사가 끝나고 소지(燒紙)할 때를 생각해서 희게 잘 표백된 깨끗한 닳은 한지를 골라 알맞게 끊어 끝이 가는 붓으로 『……(神位)』라고 조심스럽게 써서 족보책 사이에 넣어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때 지방으로 택한 종이는 화선지의 일종이었을지 모른다. 종이에 평행선으로 자국이 나 있었는데, 지방은 이 자국을 따라 길게 찢었던 것이다.

내가 쓴 글씨를 알아보고 강신(降神)하는 선조들이 이 지방으로 접신(接神)하게 될 때 나는 그 글씨를 누가 썼는지를 알아볼 수 있



▲산닥나무자생지. 남해 화방사. 1990 가을.

는 신들의 능력에 감탄했다. 제사가 끝나고 지방을 불사를 때 별로 연기도 내지 않고 타버린 뒤에 재도 남기지 않으면서 타올라 사라져 버리는 닥나무 종이의 무척 순수한 탄수화물적 성분에 놀랐다. 시원스럽게 하늘로 올라가 흔적을 남기지 않을 때 제사에 바친 우리의 정성이 잘 감응된 것으로 보고 좋아했다.

오래히 제상(祭床) 뒤에는 병풍이 세워졌다. 그때의 병풍은 나에게는 너무 높게 느껴졌다. 병풍을 치면 그 앞쪽 공간은 갑자기 성스러운 공간으로 되고 하늘나라에서 지내던 조상신들이 지난 날의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 모여 자손들의 정성을 바라보는 듯 했다. 창호지 병풍이 자아내는 신령스러운 공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경건한 그대로로 되어 갔다. 우리가 드리는 제찬은 이러한 깨끗한 공간에 차려져야 한다고 믿

었다. 제사가 끝나고 병풍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그 공간은 갑자기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급변해 버리는 데에는 놀라움이 있었다. 병풍이 무어길래 그러한 신비스러운 공간 연출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자라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병풍문화가 아니었겠는가 하고 다시 음미해 본다.

그때 우리집에는 이상한 종이독이 있었다. 아물아물 기억을 더듬어 볼 수 밖에 없는데 독은 독인데 종이를 안팎으로 덧붙인 가벼운 것이었다. 생각건대 속살은 대나무임에 거의 틀림없을 것 같으나 땡땡이덩굴로 편책(編冊)한 골격일지도 모른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골격이 철근에 해당하고 종이는 시멘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버릴 만한 창호지 조각이 있으면 모아 두었다가 풀칠해서 더덕더덕 처발라 준

다. 그 독의 생김새가 날씬한 것은 될 수 없으나 옮겨 놓기 쉽고, 통기성이 좋아서 저장한 알곡이 상하지 않고 해서 편리했으나 종종 쥐 구멍이 나서 어머니는 짜증스러워했다. 폐지를 이용한 선조들의 훈훈했던 슬기가 칼칼하고 날씬한 현대의 용기들과 무척 대조가 된다. 종이독은 할머니들의 낡은 무명 치맛자락에 안겨서 사랑을 받는 것이 어울린다.

종이독에 질세라 사랑방에는 이에 대조되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갓집이었다. 소나무를 켜서 가느다란 나무 막대기로 만들고 이것을 엮어서 8각형의 틀을 짜는데 중간은 위로 튀어올라 그 안에 갓을 넣을 수 있다. 창호지를 바르고 또 발라서 두껍게 하고 기름칠을 한 것인데 천장에 매달아 둔다. 밀바탕의 반은 여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갓집의 문을 내리고 조심스럽게 갓을 넣고는 문을 올려 닫는 것이다.

이러한 갓집은 장터에서 팔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집의 갓집은 기름에 절여서 그랬는지 어두운 노랑색이었다. 사랑방 천장에 종이 갓집이 달려있다는 것은 하나의 매력적인 실내 장식품이 되기도 했다. 어느 집 사랑방에 가도 종이 갓집이 천장 한 구석에 달려 있어서 생활 양식의 공통성에 의한 삶의 공동의식으로서의 확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종이 갓집은 갓을 먼지로부터 또 습기로부터 방호(防護)하고 간수하

는 데는 최상의 구조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니 삶에 동반한 것은 문살에 발라진 창호지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유리가 나와 창호지를 크게 대신하고 있으나 이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우리의 조상들은 창호지 문짝 안에서 살아온 백성들이었다. 얇고 얇은 한장의 창호지가 격렬한 환경의 외계를 격리시켜 실내의 고요와 평안을 지켜주었던 것이다. 방 안의 따스한 공기를 찬바람 부는 겨울밤의 외계와 갈라놓는 기능은 신기하고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가을밤 바삭하며 떨어지는 오동나무 잎사귀 소리를 오히려 증폭해서 들려주는 창호지는 위대한 악기의 고막처럼 생각되었다.

눈이 오고 달이 뜨면 젓빛깔의 창호지는 예술의 극치에 이르는 순백으로 표백되어 갔다. 눈인지 달빛인지 종이인지 분간이 가지 않고 우리는 황홀한 추상의 자연 공간에 떠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닥나무의 긴 섬유가 서로서로 손잡고 문살에 붙어 연출해 내는 특수 공간 무대로 볼 수 밖에 없었다. 우리 민족은 “창호지 문짝 민족”이라 해도 좋을 것 같다. 그 은은하고 믿음성 있는 유하면서도 강하기 짝이 없는 창호지의 문을 생각해 보자. 유리문짝에 우리 인간의 심성은 곳곳에 멍이 든 것 아닌가.

가을이 되면 날씨 좋은 날을 택해서 문짝의 창호지를 갈아 붙인다. 나는 이때 거의 예외없이 아버지의 조수 노릇을 했다. 초지장도 마주들면 가볍다 하는데 창호지는 문에 바를 때에는 마주잡고 일하는 것이 수월하다. 현 창호지를 마구 뜯어 내고 문틀을 도랑가에 가지고 가서 살에 붙어 있는 먼지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한 뒤에 문짝을 비스듬히 세워 놓으면 곧 건조한다. 이때 문살에 풀칠을 하고 나서 창호지를 갖다 붙인다. 빗자루로 슬슬 눌러준 뒤 바가지에 든 냉수를 입에 물고 창호지에 물안개를 뿌어댄다. 이것은 아마 창호지의 수축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조하고 나면 창호지는 팽팽한 상태로 긴장을 하게 된다. 손가락으로 튕겨보면 탱탱 소리가 난다.

새로 바른 창호지 문짝을 단 그 날 밤은 잠을 잘 이룰 수 없을 정

도로 환경의 변화에 감격스러워진다. 달이 떠서 달빛이 창호지의 세포간격을 지나 방 안에까지 찾아들어올 때 우리는 다른 공간의 세계로 접어들어 가슴 두근거리게 된다. 우리 민족은 해마다 가을이 오면 창호지가 주는 감격을 맛보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시골 사람들에게는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게 되고 인편도 더 많아서 편지보낼 생각이 싹트게 된다. 왕성한 여름의 생리에 휘말려서 논농사·밭농사에 골몰하다가 한숨 돌려 추수의 계절을 기다리는 동안 잊었던 동기들이 생각나고 한 두 자의 소식이라도 듣고 싶어진다. 지난날에는 전화관계 어디 있었던가.

이럴 때가 되면 동네 사람들은 흔히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것은 우리집 사랑방에는 큰 벼루와 크



▲산닥나무의 꽃. 1991 봄.

고 작은 붓, 그리고 두루마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루마리는 장터에서 사온 건데 흔히 요사이 화장실에 걸어놓고 쓰는 회전식 화장지 모양의 것이었다. 표면은 반지르르하고 뒷면을 다소 까슬까슬한데 먹이 번지지 않고 편지를 써 내려 가면서 두루마리의 종이를 서서히 풀어나간다. 편지를 쓰고 나면 끊어내고 처음부터 읽어 내려간다. 더 할 말이 있는냐고 물어보곤 하는데 읽는 도중 어머니들은 마루에 앉아서 눈물을 글썽글썽 눈물을 흘리기 일쑤다. 지금은 각종 편지지가 나오고 있지만 20세기 초반의 편지지는 두루마리 시대였다. 나무의 섬유가 두루마리 종이로 되어 소식을 전하고 인편이 떠나기 직전 “행인입발우개봉(行人臨發又開封)”하는 우리들의 인정은 너무도 평화스러운 틀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때에는 조명기구로서 전기가

없었고 석유 호롱불도 감사한 시대였다. 이 호롱은 방에서는 등잔 위에 올려 놓지만 이웃집 마실갈 때 또는 변소갈 때는 호롱을 초롱 속에 넣어 들고다녔다. 이것이 지등(紙燈)이다. 제사가 있는 밤이면 몇 개의 지등을 준비해야 했고 처마에 한 두 개를 달아서 광역조명도 할 필요가 있었다. 설날 그믐이나 정월 보름 때는 초롱불을 많이 켜 두고 나쁜 귀신을 쫓아버리기도 한 습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초롱(지등)은 나무 막대기로 측면을 4면체로 만들고 이에 창호지를 바른 것이다. 위쪽에는 구멍을 뚫어 그을음을 내보냈고, 밑바탕은 나무 판대기로 되어 있어서 호롱을 올려 놓을 수 있다. 집집마다 한 두 개의 초롱은 있었다. 때로는 초롱 안에 촛불을 켜 적도 있었다. 초롱의 은은한 불빛은 우리 민족의 생활 사고를 유순하게

만들었고 중용(中庸)을 즐기고 극단을 피하는 생활태도를 길러준 것으로 안다.

큰 비가 온 뒤 개천의 물이 불어 제방이 결파될 위험성이 있는 칠혹의 밤 중 동네어른들이 손에 손에 초롱불을 켜들고 제방에 한 줄로 모여 서서 걱정하는 모습은 동리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초롱불의 의지였고 불꽃 붉음에 물들인 창호지의 젓빛깔은 칠혹의 밤을 이겨내는 광휘였다고 회상된다. 이토록 우리 동네는 초롱불과 함께 무척 굳셈을 자랑했었다. 그것은 또한 앓은 창호지의 위대한 힘이기도 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는 또 하나 종이로 된 생활 기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빗침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희미하게 떠오르나 확실치는 않다. 요컨대 넓이가 대략 신문지 편 것만한 건데 창호지를 여러 겹으로 붙인 것이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때는 더 유독 머리칼이 흩어지는 것을 조심했다. 참빛이라 해서 간격이 촘촘한 대나무 빗으로 머리를 빗어 내리는 데 비듬과 머리의 때가 함께 밀려 나온다. 머릿기름을 흔히 쓰는 때라 창호지의 머리침은 그 기름도 함께 먹어 반들반들하고 방습성이 있었다.

머리빗질이 끝나면 머리칼을 그냥 빗침 안에 넣어 둔 채로 이리 접고 저리 접어 알맞은 크기로 해서 한쪽에 치워 보관한다. 그래



▲ 두메대나무의 꽃. 함백산. 1982 봄.

서 그 때는 머리칼이 방바닥에 떨어  
어진 일은 거의 없었고 정갈한 환  
경을 좋아했다. 그래서 빗침 창호  
지는 안방에서 예쁜 처녀들의 사  
랑 속에서 지낼 수 있었다.

그 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주로  
돛자리를 방바닥에 펴고 살았다.  
돛자리를 살짝 들면 흙이 보이고

흙냄새가 났다. 살만한 집에는 장  
판지를 깔았으나 장판지 방을 가  
진 집은 드물었다. 장판지는 몇  
겹의 창호지로 된 것인데 우리 생  
활문화의 큰 자랑이고 종이문화  
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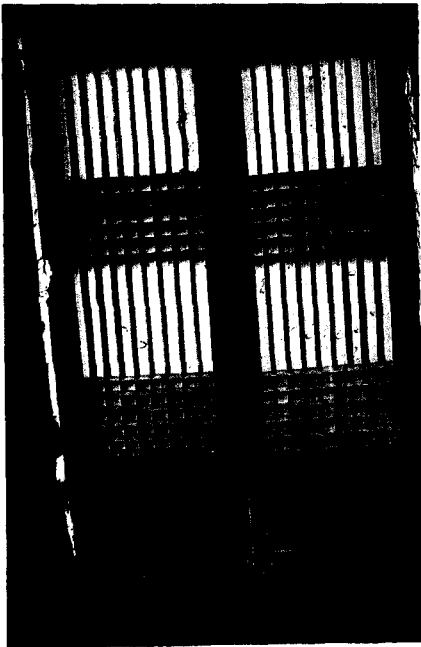
전에는 장판지를 바르고 콩땀  
질을 하고 방구들에 불을  
넣어 은근히 온도를 높이면  
콩땀의 효과가 빨리 나타났  
다. 그 뒤 하루나 이틀, 사  
흘을 사용하지 않고 장판지  
의 안정을 기다렸는데 장판  
방에만 살 수 있다면 실내  
환경으로선 더 바랄 것이  
없었다. 부자 중의 부자도  
장판장이면 그만이었기 때  
문이다. 지금에 와서는 창  
호지와 장판지는 인간의 귀

천을 평준화시킨 민주적 존재로  
되었다.

불과 몇 밀리미터 아래는 흙이  
다. 자연의 정수는 흙이고 또 자  
연의 꽃은 식물성 섬유라고 할 수  
있는데 흙과 장판지의 궁합이 딱  
들어맞고 어색함이란 없다. 장판  
위에 맨 살을 대고 누우면 자연의  
품에 안긴 감촉을 느끼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처럼 자연에 밀착된  
생활을 영위해 온 민족은 따로 없  
는 것으로 안다.

서양사람이나 일본사람이나 그  
들의 실내공간은 흙으로부터 멀  
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흙  
은 인간을 낳게 한 어머니라 할  
수 있다. 안방에서나 사랑방에서  
나 그것을 불과 수 밀리미터의 거  
리에 두고 사는 우리는 친자연민  
족(親自然民族)이라고 할 수 있  
다. 그 얇은 창호지 장판이 10년  
이고 20년이고 간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쓰면 쓸수록 광택  
이 나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장  
판방.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큰  
자랑거리라 할 수 있다.

인간은 항상 자연을 그리워한  
다. 우리의 주변이 자연으로 차  
있을 때 우리는 그만큼 더 행복하  
다. 유리보다는 종이를 시멘트보  
다는 목재를 애용하는 것은 인간  
본능적인 욕구가 아니겠는가. 생  
각해 보면 우리는 진정한 종이민  
족이었다. 이것을 성취시켜 준 나  
무가 바로 닥나무였던 것이다.



◀ 문살과 창호지 실상사. 1993. 7.  
▼ 기록된 파피루스. 대영박물관.  
1991 여름.

